

# 四象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과

## 證治醫學에서의 形象醫學 精神의 比較考察

文成煥\* · 宋一炳\*

### I. 緒 論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서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sup>1)</sup>라고 하여 明知其人和 明知其證을 종합하여 體質을 鑑別한 이후에 藥을 投與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明知其人하는 것은 人物形容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外貌와 體形을 보는데 體形氣像·性質材幹·容貌詞氣를 관찰한다.

또 明知其證하는 것은 건강한 生理條件의 恒心和 完實無病의 體質證과 病理條件의 尤甚證과 大病의 體質病證을 관찰한다.

證治醫學에서는 《東醫寶鑑》〈身形篇〉에 “凡人之形 長不及短 …”<sup>4)</sup>이라 하여 사람의 形體의 肥瘦와 色澤의 차이로서 臟腑의 虛實이 다르고 治法도 달라진다고 하여 外形이 疾病의 診斷과 治病을 決定하는데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에 《靈樞 本藏篇》에 “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라 하여 外部를 觀察함으로써 內部의 五臟六腑의 狀態를 推測하는 氣裏形表의 精神으로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에서의 外形, 특히 面形과 體形에 나타나는 類似點과 特徵을 形象醫學的 觀點

에서 考察하여 體質分類에 參考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體形

##### (1) 四象醫學

四象醫學에서 體形을 따지는 方法은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 性情에 의한 氣의 上下升降 偏差에 의하여 四焦에 담겨있는 臟腑 大小에 依한 體形氣像論이다.<sup>2)8)</sup> 이때 體形氣像論을 구별하는 하나의 方法으로 四象人 몸통의 體形을 有形化시킨 尺度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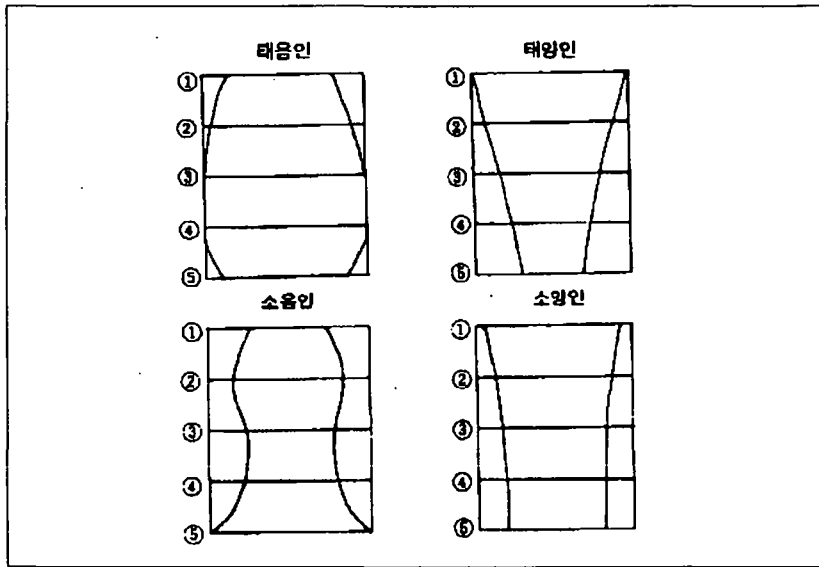
이는 四端論과 擴充論의 理論을 중심으로 體質마다 人體의 發達한 部位나 虛弱한 部位가 差異가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簡便하고 實證的으로 體質을 診斷하는 方法이다.

① 제 1선 (어깨부위) : 좌우 양쪽 액와부에 있는 대흉근 외측상단을 연결한 수평길이.

② 제 2선 (가슴부위) : 양 젖꼭지(유두)를 지나 양 겨드랑이에 이르는 수평길이.

③ 제 3선 (위부위) : 좌우 불용혈을 지나 양쪽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거드람이에 이르는 수평길이.

④ 제 4선 (배꼽부위) : 좌우 천추혈을 지나 양쪽 옆구리에 이르는 수평길이.

⑤ 제 5선 (장골부위) : 좌우 장골 양끝을 잇는 수평길이.

이 방법은 하나의 假說로서 內心이나 病證이나 하는 것을 다 省略하고 外貌 하나만 가지고 體質 鑑別을 하는 것이므로 不完全한 것이지만 簡便하고 實證化된 方法이라는 점에서 우수성이 있다. (알기 쉬운 사상의학)

위의 內容으로 보아 陽人은 胸廓부위가 크고, 陰人은 骨盤부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 少陽人과 少陰人에서 이다.)

한편 갈비뼈가 脊椎에 붙는 角度를 가지고도 體質判斷에 參考할 수 있다.(갈비뼈와 척추가 이루는 것이 둔각이면 太陰人 혹은 少陽人, 예각이면 少陰人으로 본다.)

## (2) 證治醫學

證治醫學에서는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서 처럼 四象人에 따라 腦佳頁의 起勢, 胸襟의 包勢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어깨부위	35.6(34.9-36.3)	30.3(28.9-31.6)	27.7(27.0-28.3)	26.5(26.2-26.8)
가슴부위	31.9(31.0-32.8)	27.9(26.7-29.1)	30.1(29.4-30.8)	28.8(28.4-29.2)
위부위	30.5(29.6-31.4)	26.4(25.3-27.6)	29.7(29.1-30.3)	27.0(26.6-27.4)
배꼽부위	28.6(27.5-29.8)	25.0(23.8-26.1)	30.2(29.5-30.9)	28.1(27.6-28.6)
장골부위	25.3(24.6-25.9)	23.9(22.7-25.1)	27.5(26.8-28.2)	29.9(29.4-30.3)

- 부위별 평균 길이 (단위 cm,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수치의 앞은 평균, 괄호 안은 95% 신뢰구간.
- 재는 방법 : 비닐 줄자로 잰다. 수평으로 재되 처음과 끝은 몸 측면의 중앙이 되도록 한다.

… 등의 體形을 論하지는 않았으나, 《東醫寶鑑》 <外形篇>에 의하면

- 背 : 肩背痛은 肺의 분야에 속한다.(綱目)  
背熱은 肺에 屬한다.(入門)
- 胸膈 : 咽 以下와 膈 以上을 총칭하여 胸이라 한다.(入門)  
膈은 心과 肺의 분야이다.(綱目)
- 腹 : 脾胃가 中州를 주관하니 大腹과 少腹이 그의 징후이다.(類聚)
- 脇 : 肝에 邪가 있으면 그 氣가 兩脇에 흐른다.(靈樞)
- 腰 : 腰는 腎의 外候이다.(入門)

라고 體의 各部分에 五物類의 精神에 의하여 五臟에 配屬하여 區分한다.

이는 四象醫學에서 처럼 性情에 의한 氣의 上下升降, 偏差에 의한 體形의 差別을 구체적으로 論하지 않았으나, 體의 各部分에 五臟을 代入시키고 《東醫寶鑑》 <內景篇>에서 처럼 內部的 五臟의 虛實에 의한 各證이 외부로 나타나는 表裏關係를 五物類의 屬性으로 論하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 <身形篇>의 身形臟腑圖에서 “凡人之形, 長不及短 ……”<sup>4)</sup> 이라 하여 사람의 形體는 長·大·肥가 短·小·瘦만 못하고, 色澤은 白·嫩·薄이 黑·蒼·厚만 못하고, 살이 찌면 濕이 많고, 여위면 火가 많으며, 희면 肺氣가 虛하고, 검으면 腎氣가 足하다 라고 하여 形色의 차이와 臟腑의 虛實에 따라 사람마다의 治法이 다르다고 記하고 있다.

또한 <辨證門> 『肥瘦辨病候』에서 “肥人是 寒濕이 많고 瘦人是 燥熱이 많다”(丹心) 라고 하였다. 또 <用藥門> 『肥瘦用藥』에서 “肥人氣虛痰火요 瘦人血虛有火(入門)를 말하였고, 白人不可多服發散藥이요 黑人不可多服黃芪”라고 하였다.

이는 人體 生理現象에서 形色의 차이와 體形의

肥瘦, 五臟의 虛實에 따라 用藥의 方法을 달리하여 形氣論의 說明方法을 이용하여 說明하는 形象醫學이다.

즉 天人關係의 人間觀에서 나온 證治醫學의 五物類의 思想에 의한 確立적 形氣論의 形象醫學이다.

## 2. 面形

### (1) 四象醫學

<東醫壽世保元>에서 특별히 面形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辨證論>에 容貌詞氣論에서 “太陰人의 얼굴모습과 말하는 기운 및 행동거지에 위외가 있고 잘가다듬으며 공명정대하다. 少陰人의 얼굴모습과 말하는 기운 및 몸가짐은 자연스럽고 簡易하며 잔재주가 있다.”<sup>3)</sup> 라고 하였다.

또한 文獻에 根據하지 않았으나 經驗적으로 <四象醫學原論> 附錄에서 洪은 四象人의 얼굴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太陽人은 보통 이마가 넓고 顴骨이 나왔고,  
少陽人은 머리가 앞뒤로 突出하였다 하였고,  
太陰人은耳目口鼻가 크다고 하였고,  
少陰人은 少陽人의 반사형에 비하여 少陰人은 흡수형이라 하였다.

四象體質 診斷의 客觀化를 위한 形態學의 研究에서도

太陰人은 顏面적이 최대이고, 또한 下顏面적도 최대이며, 中顏 부위가 함몰한 특징이 있고

少陰人은 얼굴이 퇴축되어 있고, 입의 돌출이 최소, 턱이 퇴축되어 있고

少陽人은 얼굴이 돌출되었고, 중안도 돌출형이며, 입이 돌출되고, 兩眼間이 최소이며, 입의 면적이 최소이며, 이마의 경사가 최소이다.

위의 열거된 사항으로 볼 때 陽人은 面形이 전

후로 들출형이며, 陰人은 面形이 吸收形이라 하겠다. 太陰人에 비하여 少陰人, 少陽人은 얼굴이 작고 下顔의 면적이 작다고 하겠다.

(2) 證治醫學

證治醫學에서 氣稟形表, 얼굴에서 五臟六腑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마는 心, 턱은 腎, 鼻는 脾, 左頰은 肝, 右頰은 肺의 部位로 對應시키는 五行方位의 方法과 (素問)<sup>7)</sup>(入門)<sup>8), 그림1)</sup>

둘째로 사람의 머리부터 발까지 얼굴에 挿入시키는 小人形法으로 庭者, 首面也 ... (靈樞 五色篇)<sup>5), 그림2)</sup>, 庭者, 額中也 ... (醫學綱目)<sup>6), 그림3)</sup>에 의하여 얼굴에 背, 肩, 臂, 膺, 股, 膝 등을 代入시켜 五臟 뿐만 아니라 身體의 上中下體를 모두 代入시킴으로서 面의 部分에서 人體의 各 部分을 觀察하는

방법이다.<sup>그림4)</sup>

이런 方法에 의하여 《東醫寶鑑》<浮腫篇>에 “浮腫의 徵兆는 눈 밑이 먼저 붓는데 이는 눈 밑이 腹 部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10)</sup>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얼굴을 上·中·下로 나누어 上停·中停·下停<sup>11)</sup>으로 명칭하고 이 上停·中停·下停을 身體의 上焦·中焦·下焦를 聯關시켜 볼 수가 있고 氣의 上下升降과 五臟六腑의 상태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또한 面形에 있어서는 《靈樞 二十五人篇》에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sup>9)</sup>에서 人體의 各 部分에 五行人의 특징과 행동의 특징에 대하여 記하고 있는데 그 面形을 《新人相學》에 의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근래에는 筋骨質, 心性質, 營養質 등으로도 區





分한다.(新人相學)

面形에서도 體形과 마찬가지로 黑白肥瘦의 形象의 方法으로 體質을 區分하는데 水形·土形·營養質의 體質은 氣虛하고 濕痰이 많으며, 木形·心性質의 體質은 血虛燥熱하다.

### Ⅲ. 考察

證治醫學에서 面은 診斷을 위한 五臟六腑의 상태뿐만 아니라 五臟六腑가 對應하여 나타나는 人體의 狀態와 體形을 推測할 수 있는 對象으로 볼 수 있다.<sup>5)6)7)그림2)그림3)</sup>

즉 小人形法에 依하여 人體의 寒熱肥瘦와 上中下焦의 狀態를 面에 上中下停에 對應하여 推測할 수 있다.

이는 人體의 五臟과 背胸腹腰脇 등이 面에 各部位에서 對應하므로 面形에서 體形을 類推하여 볼 수가 있다.<sup>5)6)7)그림2)그림3)</sup>

四象醫學에서는 性情에 의한 氣의 上下升降 偏差에 따른 臟器大小에 의하여 體質마다 體形이 다르게 나타나는데<sup>2)15)16)17)18)</sup> 體形과 面形の 관계가 있음을 小人形法에서 列舉하였으므로 面形으로도

氣의 上升·下降의 過少를 짐작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擴充論에서 性氣·情氣의 體質에 따른 進退의 氣의 差等에 따라<sup>12)13)14)</sup>

太陽人 性氣는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人 情氣는 恒欲外勝而不欲內守

라고 하여 陽人은 突出形 경향이 強하며

少陰人 性氣는 恒欲處而不欲出

太陰人 情氣는 恒欲內守而不欲外勝

라고 하여 陰人은 吸收形 경향이 強하다.

즉 太少陰陽 四體質의 性情에 따라 氣의 上下升降 前後進退로 因하여 體形과 面形에도 區別되어진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上升之氣가 많은 太陽·少陽人은 面의 上停部位인 이마가 발달하고, 性格이 前進之氣가 強하여 面形이 突出形이며,

下降之氣가 많은 太陰·少陰人은 面의 下停部位인 턱부위가 발달하고, 性格이 後退之氣가 強하여 面形이 吸收形이라 하겠다.

### Ⅳ. 結論

四象醫學에서는 外貌, 心性, 病證을 綜合하여 體質을 區分하므로 體形이나 面形 등과 같은 外形만에 의한 體質區分은 不完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外形에 의한 四象體質 區分의 基本的인 基準設定도 必要하다고 思慮되어 어떠한 特征적인 형태에 의한 四象體質을 鑑別하려 하여서 形象醫學의 觀點에서 外形을 四象醫學과 證治醫學으로 高찰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證治醫學에서는

1. 人身의 上中下部를 面의 上中下停에 配屬할 수 있다.
2. 水形 土形 營養質과 같은 形은 대개 氣虛하고 濕痰이 많으며, 下停이 발달되어 있다.
3. 木形 心性質과 같은 形은 대개 陰虛 또는 血虛하며, 上停이 발달되고 下停이 萎縮되어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1. 面形에서 氣의 上下升降의 偏差로 陽人은 上停이 發達하고, 陰人은 下停이 發達하였다.
2. 面形에서 氣의 前後進退의 偏差로 陽人은 突出形이고, 陰人은 吸收形이 나타난다.
3. 少陽人은 이마부위의 上停이 發達하고 證治醫學的 觀點에서는 陰虛·血虛로 因한 下停이 萎縮되고 木形·心性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4. 太陰人은 體와 面의 면적이 대체로 제일 크며, 證治醫學的 觀點에서는 濕이 많고 下停이 發達된 水形·土形·營養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5. 少陰人은 자연스럽고 간략하다고 하며 少陽人과 같이 面의 면적이 太陰人 보다 크지 않으나, 證治醫學的 觀點에서는 陽虛·氣虛를 뜻하는 面色이 많이 나타난다.

## 材 料

1.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 最不可經忽而 一貼藥 誤投重病險證 一貼藥 必殺人.
2. 太陽人 體形氣像 腦佳頁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佳頁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3.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4.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 而況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 肺氣虛, 黑者, 腎氣足,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5.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臑也. 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 各有部分. 有部分, 用陰和陽, 用陽和陰, 當明部分, 萬舉萬當, 能別左右, 是謂大道, 男女異位, 故曰陰陽.(靈樞 五色篇)
6. 庭者, 額中也. 闕中者, 兩眉之間也. 下極者, 兩目之間也. 直下者, 兩鼻而下也. 方者, 鼻隧也. 面王者, 鼻柱之端也. 蓋自額而下闕上. 屬首, 咽喉之部分也. 自闕中循鼻而下鼻端. 屬肺, 心, 肝,

脾，腎，五臟之部分也。自目內眥挾鼻而下至承漿(穴名)。屬腦，胃，大小腸，膀胱，六腑之部分也。自額而下頰，則屬肩·臂·手之部分也。自牙車而斜下頤。屬股·膝·脛·足之部分也。(醫學綱目)

7. 心熱病者，顏先赤(顏即額也)。脾熱病者，鼻先赤。肝熱病者，左頰先赤。肺熱病者，右頰先赤。腎熱病者，頤先赤。(素問 刺熱論)

8. 左頰青龍屬肝，右頰白虎屬肺，天庭高而離陽屬心火，地閣低而坎陰屬腎水，鼻在面中屬脾。凡五岳，赤者皆熱，淡白者皆虛。(醫學入門)

9. 木形之人，比於上角，似於蒼帝，其為人，蒼色，小頭，長面，大肩背，直身，小手足，好有才，勞心，少力，多憂，勞於事。能春夏，不能秋冬，感而病生，足厥陰佗佗然。大角之人，比於左足少陽，少陽之上遺遺然。左角之人，比於右足少陽，少陽之下隨隨然。鈇角之人，比於右足少陽，少陽之上推推然。判角之人，比於左足少陽，少陽之下括括然。

火形之人，比於上徵，似於赤帝。其為人，赤色，廣脰，脫面，小頭，好肩背腠腹，小手足，行安地，疾心，行搖，肩背肉滿，有氣，輕財，少信，多慮，見事明，好顏，急心，不壽暴死。能春夏，不能秋於，秋冬感而病生手少陰，核核然。質徵之人，比於左手太陽，太陽之上肌肌然。少徵之人，比於右手太陽，太陽之下，悒悒然。右徵之人，比於右手太陽，太陽之上，斂斂然。質判之人，比於左手太陽，太陽之下，支支頤頤然。

土形之人，比於上宮，似於上古黃帝。其為人，黃色，圓面，大頭，美肩背，大腹，美股脛，小手足，多肉，上下相稱，行安地，舉足浮安，心好利人，不喜權勢，善附人也。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足太陰敦敦然。大宮之人，比於左足陽明，陽明之上婉婉然。加宮之人，比於左足陽明，陽明之下，坎坎然。少宮之人，比於右足陽明，陽明之

上樞樞然。左宮之人，比於右足陽明，陽明之下兀兀然。

金形之人，比於上商，似於白帝。其為人，方面，白色，小頭，小肩背，小腹，小手足，如骨發踵外，骨輕。身清廉，急心靜悍，善為吏，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手太陰敦敦然。鈇商之人，比於左手陽明，陽明之上廉廉然。右商之人，比於左手陽明，陽明之下脫脫然。大商之人，比於右手陽明，陽明之上監監然。少商之人，比於右手陽明，陽明之下嚴嚴然。

水形之人，比於上羽，似於黑帝。其為人，黑色面不平，大頭廉頤，小肩，大腹，動手足，發行搖身，下尻長背，延延然，不敬畏，善欺給人戮死，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足少陰汗汗然。大羽之人，比於右足太陽，太陽之上，頰頰然。少羽之人，比於左足太陽，太陽之下，紆紆然。衆之為人，比於右足太陽，太陽之下，潔潔然。徑之為人，比於左足太陽，太陽之上，安安然。是故五行人二十五變者，衆之所以相欺者是也。

10. 水者陰也，目下亦陰也，腹者至陰之所居，故水在腹者，必使目下腫也。(素問)

11. 面之三停者，自髮際下至眉間為上停，自眉間下至鼻為中停，自準下人中至頰為下停。(神相全篇)

12.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 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

13.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莊 不能進也

少陽之舉 量可而舉也 自反其力而不固 不能舉也

太陰之靜 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 不能處也

14. 太陽之情氣 恒欲為雄而 不欲為雌

少陰之情氣 恒欲為雌而 不欲為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 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 不欲外勝

15.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16.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17.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

18.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 參考文獻

1. 李濟馬：東醫壽世保元，서울，壽文社，1976.
2. 홍순용·이을호：四象醫學原論，서울，壽文社，1984.
3.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5.
4. 宋一炳：알기쉬운 四象醫學，서울，하나미디어，1991.
5. 홍원식 편：黃帝內經 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1985.
6. 홍원식 편：黃帝內經 素問，서울，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1985.
7. 希夷陳：神相全篇，臺南，합성미술인쇄，1971.
8. 盧毅安：新人相學，香港，영남인쇄공사，1979.
9. 宋一炳：東醫寶鑑을 四象醫學 領域에서 살펴본 特徵과 끼친 影響，서울，四象醫學會誌，1992.
10. 李鍾律：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碩士過程 中間發表，1993.
11. 허만희：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경희대학원 碩士學位 論文，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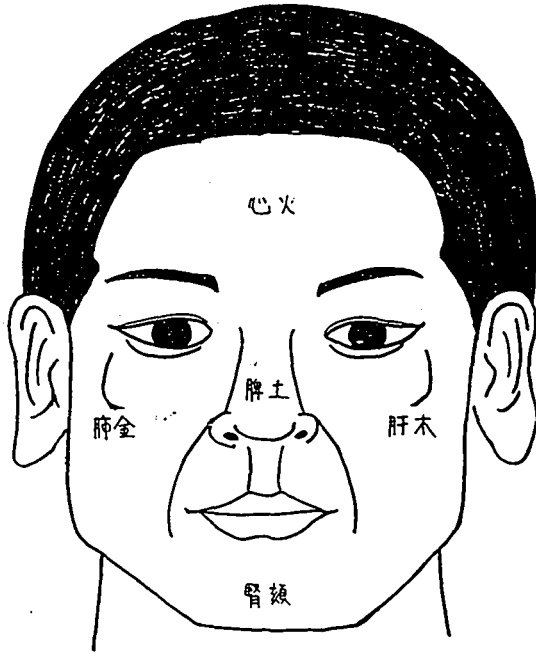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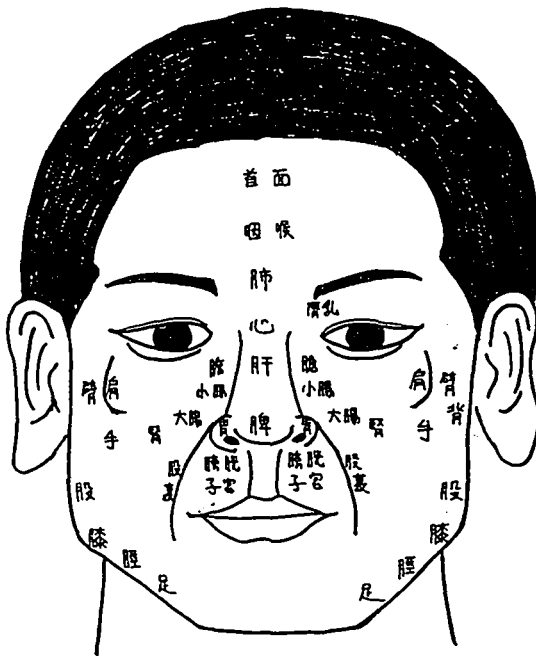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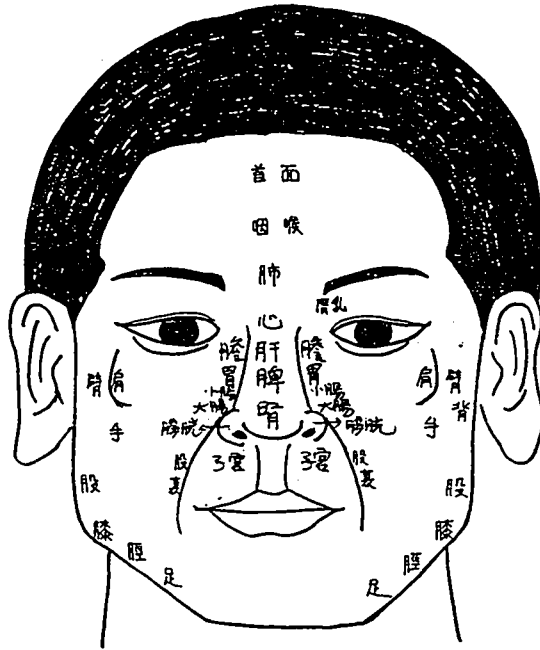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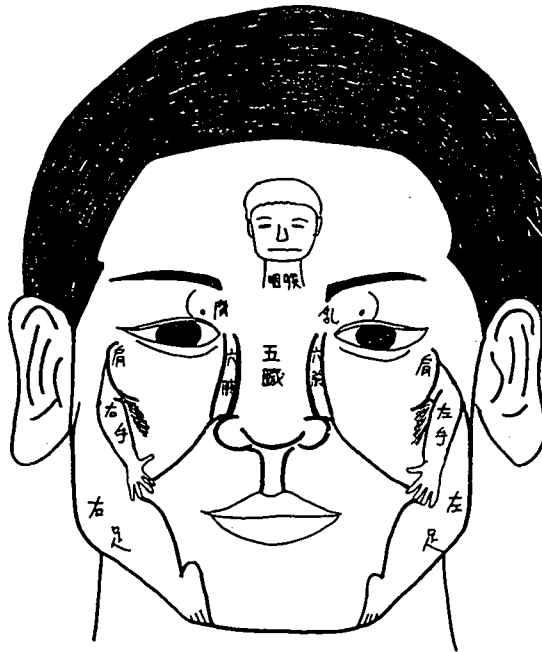


그림 4